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4.6.(금)	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 주 형(02-2100-2860)		담 당 자	박 석 훈 사무관 (02-2100-2864)	

제 목 : 17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

■ '17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(TECH 평가) 결과

- (대형은행 그룹) 1위 **기업은행**, 2위 **신한은행**
- (소형은행 그룹) 1위 **경남은행**, 2위 **대구은행**

■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결과,

- **국민 · 기업 · 산업 · 신한 · 우리 · 하나은행은 레벨4로 상향**
- **부산 · 경남은행은 레벨3로 상향**

※ (레벨 심사) 은행별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은행 자체 기술평가로 기술금융 공급이 가능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

※ (자체 평가 비중) (레벨1) 예비실시 → (레벨2)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% 이내 → (레벨3) 50% 이내 → (레벨4) 제한없음

1 2017년 하반기 은행 TECH 평가 결과

- (평가 요소) 기술금융 ①대출공급규모와 ②질적 구성(기술기업지원 항목), ③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④기술금융의 은행별 내재화 정도(지원역량 항목)를 정성적으로 평가

※ 정량평가(금감원), 정성평가(신정원) → 금융연구원 검증 → 「TECH 평가위원회」 심사

< 평가 지표 (요약) >

< 평가 항목 >		< 평가 요소 >
평가 지표	(배점)	
정량평가 (80점)	1. 공급규모	(20.0) · 대출액, 차주수 증가
	2. 기술기업지원	(45.0) · 신용대출 비중, 초기기업 비중, 우수 기술기업 비중 등
	3. 기술기반 투자 확대	(15.0) · 기술금융 투자 증가
	4. 지원역량	(20.0) · 기술금융 역량(인력·조직), 리스크 관리 체계, 기술력 반영 시스템 구축 정도 등
정성평가 (20점)		

□ **(평가 결과)** 대형은행 그룹은 기업은행이(74.3점/100점 만점) 1위를 차지하고 신한은행(71.2점)이 2위를 차지

○ 소형은행 그룹은 경남은행(75.8점)이 1위, 대구은행(65.4점)이 2위

<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>

구 분		1차 (14.하)	2차 (15.상)	3차 (15.하)	4차 (16.상)	5차 (16.하)	6차 (17.상)	7차 (17.하)
대형 은행	1위	신한	국민	신한	기업	기업	KEB하나	기업
	2위	우리	신한	KEB하나	신한	신한	신한	신한
소형 은행	1위	부산	부산	부산	부산	경남	대구	경남
	2위	대구	대구	경남	경남	부산	경남	대구

* 기업은행은 '16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 그룹에서 경쟁(16년 前 기은은 특수은행 그룹)

< 대형 은행 >

- ① 기업은행은 대출 공급규모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력·조직, 리스크 관리체계 등 지원 역량을 효과적으로 갖춘 것으로 평가
- ② 신한은행은 신용대출비중 및 초기기업 지원(질적지표) 등이 우수하며 기술평가 기반 투자공급액을 큰 폭으로 확대

< 소형 은행 >

- ① 경남은행은 대출규모, 투자규모, 지원역량 등 다수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타 소형은행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
- ② 대구은행은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대출 공급규모, 지원역량 등에서 강점

□ **(시사점)** 기술금융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성숙되어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되는 추세

○ (양적 측면) '17년, 기술금융 대출은 81.6조원 수준(누적 순증잔액 기준)으로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('17년 목표 80.0조원)

- 기술기반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
(('16) 7,970억원 → ('17) 17,070억원, 전년 대비 114% 증가)

○ (질적 측면) 기술금융대출은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하여 금리 0.23%p 인하, 한도 1.6억원 확대 등 실질적 금융편의를 제공

- 특히, “창업 7년 이내, 매출액 100억원 이하” 초기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성숙(('16) 36.3% → ('17) 46.3%)

2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결과

- (평가 요소) ①전문인력 수, ②평가서 수준, ③실적요건(직전 단계 실시기간), ④물적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

※ 민간 기술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「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」가 심사

- 심사 결과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(레벨)가 상향될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

< 평가요소 및 단계별 인센티브 >

항목	예비실시	정식실시		전면실시
	Level 1	Level 2	Level 3	Level 4
전문인력 수 (소형은행)	5명 이상 (3명 이상)	10명 이상 (5명 이상)	15명 이상 (7명 이상)	20명 이상 (10명 이상)
평가서 수준 (소형은행)	70점이상 60% (70점이상 70%)	70점이상 70% (70점이상 80%)	70점이상 80% (80점이상 80%)	80점이상 80% (80점이상 80%)
직전레벨 실시기간	-	6개월	6개월	1년
물적 요건	별도 조직 마련, 자체 모형 구축, 전산화 등			
자체 TCB대출 가능금액*	-	20%	50%	제한없음

*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 대비 비율

- (평가 결과) 6개 은행(국민·기업·산업·신한·우리·하나) 「레벨 4」 상향, 2개 은행(부산·경남) 「레벨 3」 상향을 승인

- (시사점) 기술금융의 은행권 내재화가 가속화되어 개별 은행이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에 준하는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

- ① (평가 역량) 6개 은행은 20명 이상의 전문인력, 독자 평가모형·전산시스템 등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

- 다양한 자격을 갖춘 기술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, 전담분야별 소팀제 운영 등 조직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

< 8개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현황 >

	레벨 4						레벨 3	
은행	산 업	신 한	우 리	하 나	기 업	국 민	부 산	경 남
전문인력	20명	20명	21명	20명	20명	23명	7명	7명
조직	평가전담조직 내 전담기술분야별 세분화						평가전담조직	
평가모형	은행별 독자 기술평가모형 운영 (업종·업력 등에 따라 세분화)							
전산시스템	기술금융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 (평가결과 DB화 및 집중 포함)							

② (평가서 품질) 전문인력 확충 및 노하우 축적, 기술평가모형의 개선 등에 따라 평가서 품질 수준이 안정적 궤도에 정착

※ 평가등급 적정성, 기술성 및 시장·사업성 의견 적정성 등을 민간 전문가가 심사

< 은행별 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>

	레벨 4						레벨 3	
	산업	신한	우리	하나	기업	국민	부산	경남
80점이상 평가서 비중	80%	100%	100%	87%	100%	100%	100%	100%
평균 점수	86.0	96.0	91.7	88.7	95.0	90.7	99.3	96.7

③ (정착 노력) 6개 은행은 통합여신모형* 정착 로드맵을 수립하고, 평가결과 축적, 분석 및 모형개선 노력을 지속

*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등급과 은행 자체 여신심사 모형에 따른 신용등급이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마련 추진(현재 기술등급, 신용등급 이원화 운영)

- 나아가 기술평가 전문인력이 투자·컨설팅 등 다방면에 참여하고 있으며, 기술금융 조직과 투자·비금융서비스 등 타 조직과의 연계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

3 향후 계획

☐ 6개 은행은 '18년 상반기부터 자체 TCB평가의 전면실시가 가능
→ 은행권 내 기술력 반영 관행 정착이 가속화 예상

☐ 이에 따라 기술평가 신뢰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·외부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

① (내부) 은행은 TCB社에 준하는 자율 품질관리체계* 마련 등을 통해 자체 품질 관리를 강화

* 독립된 검수조직 마련, 검수자 실명제 및 이력관리 등

② (외부) 금융위는 기술금융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*을 수립하고, 외부 전문가를 통한 주기적인 품질모니터링 제공

* 기존 TCB社 평가와 은행 자체 TCB평가간 통일된 기준 마련 및 명문화·제도화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